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장지현 · 전상희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III. 조사내용
II. 유적의 환경	IV. 조사결과 및 성과

I. 조사개요

완주군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와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총 길이 약 4.1km, 260,000㎡의 면적을 대상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은 이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지표조사는 지난 2013년 1월에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 내에서 완주 둔산리 유물산포지, 완주 둔산리 서당유물산포지, 완주 수계리 청동유물산포지² 등 유물산포지 3개소가 신규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산포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의 유물이 다양하게 수습되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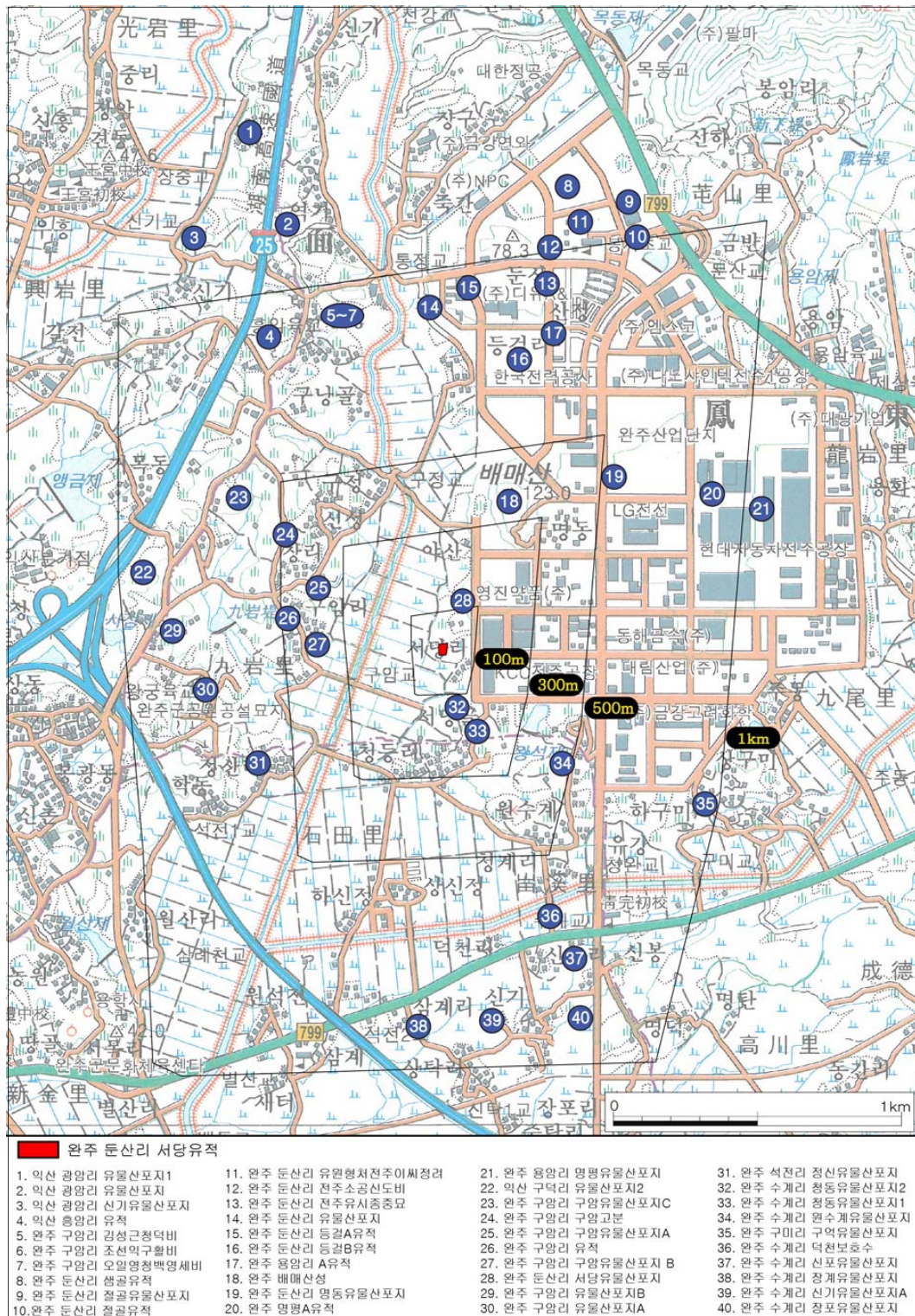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3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4년 04월부터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진행하였는데, 둔산리 서당유적에서는 청동기~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둔산리 서당유적은 지형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2-1구간을 제외한 2-2구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1)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II. 유적의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북 완주군 봉동읍 서당리 일원에 해당하며, 동쪽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한 배매산(해발고도 123m)에서 남-서방향으로 흘러 내린 구릉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조사지역 서쪽 일대는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작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지역 주변에는 청동기~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익산 구암리유적을 비롯하여 삼국시대 고분이 확인된 완주 둔산리유적,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가 발견된 완주 용암리유적A, 삼국시대 주거지 및 목책열, 수혈유구 등이 확인된 배매산성 등 구석기~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둔산리 서당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에서 확인된 수계리 청동유적이 자리하고 있는데, 구석기시대 문화층을 비롯하여 초기철기시대 토광묘가 확인된 바 있다.



도면 01.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02.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유구분포도

III. 조사내용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은 해발고도 30m 정도의 구릉 남서사면에 분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초기 철기시대 수혈유구 16기,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9기, 고려~조선시대 구상유구 2기 및 토광묘 8기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01.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 조사완료 후 전경(항공사진)

1.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총 16기가 확인되었는데, 조사지역 내 남서사면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사지역 내 남사면에는 1~11호 수혈유구가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규모도 다른 수혈유구에 비해 큰 편이다. 평면형태는 방형 2기와 부정형 1기 외에는 모두 원형 또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대부분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쪽에 조성된 2·3·9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목탄을 비롯한 소량의 소토덩어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2호 수혈유구 내부에서 두형토기 1점을 비롯한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

었으며, 9호 수혈유구 내부에서도 두형토기 1점을 비롯해 다량의 무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이 소량으로 확인되었다.

〈표 01〉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 조사현황

호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 모(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타원형	동-서	300	164	30	무문토기편	
2	방형	동-서	197	126	13	두형토기, 점토대토기편	
3	원형	-	130	107	12	무문토기 저부편	
4	타원형	동-서	88	134	10	-	
5	방형	남-북	252	175	50	-	
6	원형	-	205	175	13	무문토기편	
7	타원형	남-북	200	124	24	무문토기편	
8	원형	-	134	41	17	-	
9	부정형	-	345	230	40	두형토기, 무문토기편	
10	타원형	동-서	94	75	17	-	
11	타원형	동-서	93	120	40	-	
12	타원형	북동-남서	125	80	16	-	
13	타원형	동-서	112	112	17	-	
14	타원형	북동-남서	231	139	37	-	
15	타원형	남-북	114	66	21	-	
16	타원형	북서-남동	9132	65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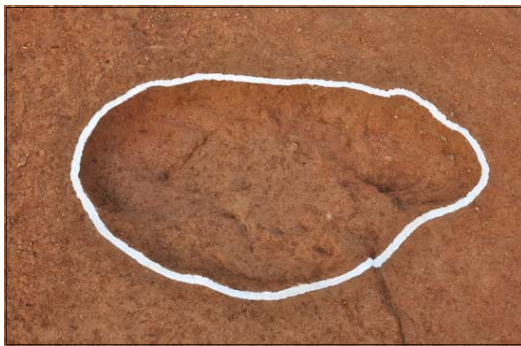


사진 02. 1호 수혈유구



사진 03.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사진 04. 2호 수혈유구



사진 05.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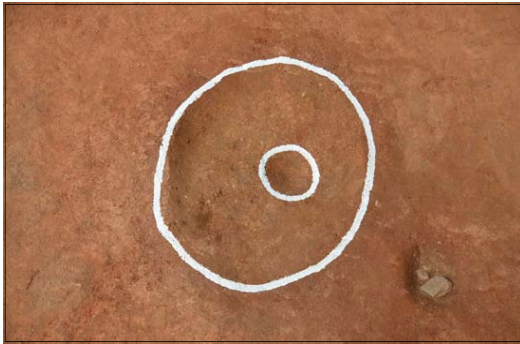


사진 06. 3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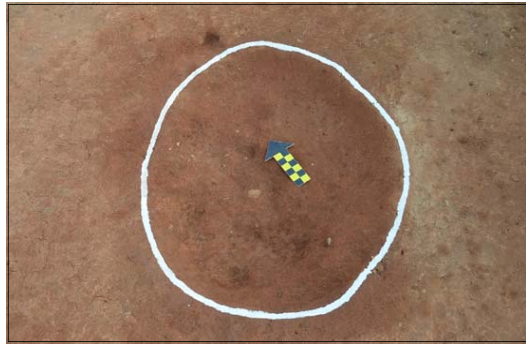


사진 07. 6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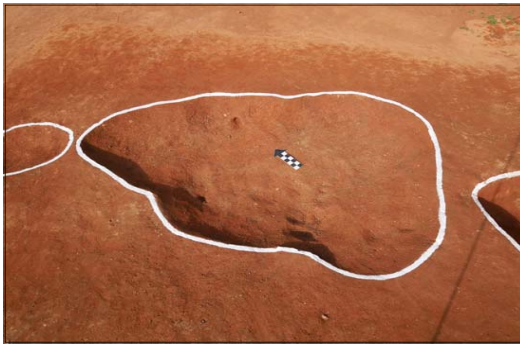


사진 08. 9호 수혈유구



사진 09.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2.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토광묘는 모두 19기가 확인되었는데, 북사면에 6기, 서사면에 13기가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나 11·17호는 타원형 그리고 1·4·12·15·18호는 세장방형의 형태를 띤다. 장축방향은 북사면에 조성된 토광묘는 남동-북서 방향이며, 서사면에 조성된 토광묘는 동-서방향으로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어 있다.

규모는 가장 작은 12호 토광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길이 176~258cm, 너비 42~120cm 내외이며,

깊이는 다양한 편으로 4·11호 토광묘가 120cm 이상 잔존하고 있어 가장 깊다. 내부 퇴적양상은 단면‘U’자형이나 ‘V’자형의 함몰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1호 토광묘의 경우에는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1호 토광묘 바닥에서는 목질흔 및 회백색 점질토가 일정한 두께로 퇴적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관을 안치했거나 또는 바닥에 목관을 시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질흔 및 회백색점질토의 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40cm 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유물은 1·4·14호 토광묘에서 세형동검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14호 토광묘에서는 동사 1점, 17호 토광묘에서는 동부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대부분의 토광묘 내부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흑도장경호, 발형토기, 소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표 02〉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조사현황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규 모 (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세장방형	남동-북서	218	42	36	세형동검, 소호, 장경호	목관흔
2	장방형	남동-북서	186	59	18	-	-
3	장방형	남동-북서	250	70	31	무문토기편	-
4	세장방형	남동-북서	258	62	140	세형동검, 흑도소호	목질흔
5	장방형	남동-북서	198	66	48	발형토기	-
6	장방형	동-서	219	82	60	발형토기	-
7	장방형	동-서	228	84	29	-	-
8	장방형	동-서	215	80	63	흑도장경호	-
9	장방형	동-서	220	97	70	-	-
10	장방형	동-서	208	74	33	-	-
11	타원형	동-서	253	120	120	-	목관흔
12	세장방형	동-서	158	45	22	석축	-
13	장방형	동-서	233	78	63	발형토기, 소호	-
14	장방형	동-서	190	107	77	세형동검, 동사, 원형점토대토기	-
15	세장방형	동-서	196	50	20	흑도장경호	-
16	장방형	동-서	190	76	45	-	-
17	타원형	남동-북서	242	88	52	흑도장경호, 동부	-
18	세장방형	동-서	176	52	20	-	-
19	장방형	동-서	206	80	30	-	-



사진 10. 1호 토광묘



사진 11.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2.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3. 4호 토광묘



사진 14. 4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5. 4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6. 5호 토광묘



사진 17. 5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18. 11호 토광묘



사진 19. 11호 토광묘 토층



사진 20. 12호 토광묘



사진 21. 12호 토광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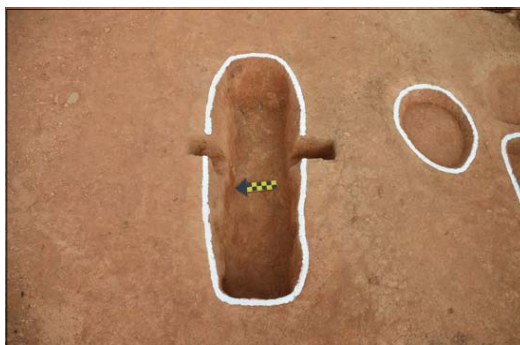


사진 22. 13호 토광묘



사진 23. 13호 토광묘 출토유물



사진 24. 14호 토광묘



사진 25. 14호 토광묘



사진 26. 15호 토광묘



사진 27. 15호 토광묘 출토유물

IV. 조사결과 및 성과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토광묘, 고려~조선시대 구상유구와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및 성과를 초기철기시대 유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토광묘는 19기가 조사되었는데, 입지는 구릉 정상부와 북사면, 남사면 등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고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어 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장타원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부 세장방형의 형태도 확인된다. 묘광의 규모는 대형의 경우 길이 250cm 내외, 너비 90~110cm내외이고 깊이는 최대 140cm까지 잔존한다. 내부 퇴적양상은 크게 'U'자형 및 'V'자형 함몰층으로 확인되며, 일부 토광묘에서 목관 및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된다. 토광묘 바닥에는 회청색을 띠는 점질토가 정연하게 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길이 180cm내외, 너비 40cm내외로 매우 세장한 편이다. 이렇게 정연하게 장방형을 이루는 회청색점질토는 목관 또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2. 토광묘 내부에서는 세형동검, 동사, 동부 등의 청동유물과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흑도 장경호, 소호, 발형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양상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철기류는 1점도 부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완주 둔산리 서당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의 조성연대는 기원전 3세기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다.

3. 수혈유구는 모두 16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두형토기를 비롯하여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수혈유구는 동시기로 추정되는 토광묘와 서로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주목되며, 분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생활유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